

공동체 소식



주님 승천 대축일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저희를 들어 높이셨으니,
저희가 거룩한 기쁨에 가득 차 감사의 제사를 바치며, 머리인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올라가신 하늘 나라에 그 지체인 저희의 희망을 두게 하소서.



5월 기도지향

- 이우석(프란치스코), 김인자(글라라) 가정
- 차호섭(오셉), 최선운(마리아) 가정

성모성월

교회는 해마다 5월을 성모성월로 지냅니다. 성모 마리아를 온 인류의 어머니이시며 교회의 어머니로 공경하는 교회는 전례 주년을 통하여 구세사를 기념하는 동안 성모 마리아의 축일을 지내며, 성모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전구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러나 성모 마리아에 대한 공경은 하느님에 대한 흠숭과는 다릅니다. 곧 성모님께서서는 우리 신앙인의 본보기로서,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으신 성인 중의 성인으로서 특별히 공경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북미주 사제 컨퍼런스

- 일시 : 5/13(월) ~ 17(금) 4박 5일
- 장소 : Howard Johnson Hotel(L.A)

썰 기도 첫 모임

- 일시 : 5/21(화) 오후 8시 미사 후
- 장소 : 회관

성모성월에 저희 공동체가 썰기도 첫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파티마 성모님의 전구에 의탁하며, 참된 성모신심이 공동체에 싹트기를 기원합니다. '파티마 세계 사도직 미주 평의회'에서도 축하인사와 함께 저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서신이 왔습니다.

로렌스 공동체 미사

- 일시 : 5/25(토) 오후 5시
- 장소 : KU 로렌스 성당

기타

- 지난 '성모의 밤(5/10)'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맨하탄 야외미사(5/18)는 공동체 사정으로 취소되었습니다.
- 이번 주일, 공동체 점심 예찬은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오붓한 시간 갖으시길 바랍니다.
- 다음 주일(5/19)은 '성령강림대축일'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은사를 청해봅시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들	성 체	마 침
141	211	165/166	137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향 복사
금주	문호진(안토니오)	안광민(제임스)
	문예나(요안나)	고평원(프란치스코)
차주	안지영(카타리나)	정병훈(보니파시오)
	정예찬(미카엘)	차서은(세라피나)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주연(세실리아)	문석찬(요 셉) 백문주(엘리사벳)
차주	김명은(안 젤 라)	차호섭(요 셉) 최선운(마 리 아)

애찬 봉사자

금주	가족과 함께(마더스 데이)
차주	김시연, 조경희, 이대숙, 김말자, 문경윤

헌금 봉사자

금주	김태중(예레미아)	정수환(베 드 로)
차주	최은미(아 네 스)	문석찬(요 셉)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4/28	103명	689불	1,980불
5/5	98명	339불	500불

주님 승천 대축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2013년 5월 12일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8:0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만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C: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C: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부 회 장 정수한 베드로
 C: 913.707.8142
 scnn8@hotmail.com

재 무 차호섭 요셉
 C: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부활 제7주일인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성부에게서 나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느님 나라의 하느님 아버지께로 오르신 것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 참고향인 하느님의 품으로 가기를 희망하며 청합니다.

성화해설

그리스도의 승천 (지오토 디 본도네, 1302-1305, 프레스코 파도바, 스크로베니 성당)
 예수님의 승천은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성부 오른편으로 들어 높이 지신 구원 사건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 승천 등 당신의 전 생애를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의 업적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부활과 승천을 동일한 신비의 양 측면으로 보았고, 바오로는 승천의 가치가 인간 구원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승천은 신성과 일치된 인간의 승천이요, 그 인간이 구원되어 목적지에 도달함을 의미합니다.

지영현 시몬 신부 |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제 1 독서 : 사도 1,1-11 < 예수님께서서는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다. >



환 호 소 리 높 은 중 에 하 느 님 오 르 시 도 다 - 하 느 님 오 르 시 도 다

- 만백성 너희들은 손뼉을 쳐라 기쁜 소리 드높이 주님 불러라. 주님께서서는 지존하고 지엄하시다 온누리의 크옵신 임금이다. ◎
- 환호소리 높은 중에 하느님께서 오르시도다 나팔소리 나는중에 주님오르시도다. 노래하여라 노래하여라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그를 타며 우리 왕께 노래를 하여라. ◎
- 하느님은 온땅의 임금이시니 멋지게 그를 타며 노래불러라. 하느님께서 못나라를 다스리시도다 거룩하신 어좌에 앉으시도다. ◎

제 2 독서 : 에페 1,17-23<또는 히브 9,24-28; 10,19-23> < 하느님께서서는 그리스도를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복 음 : 루카 24,46-53 <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



쉐 마

“누구도 그분의 이름으로 권위를 주장하지 마라.”



부활 대축일이 지나고 40일이 지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합니다. 부활과 승천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을 넘어 하느님 안에 살아 계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곧 승천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루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같은 저자가 집필하였는데, 두 문서에 승천을 서로 달리 기록한 것은 승천에 대한 사실보도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말은 그분이 제자들을 떠나 하느님에게로 가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위에 군림하지도 않으시고, 당신의 초능력으로 제자들의 활동을 돕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떠나가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겨 놓은 것은 당신에 대한 기억이고, 성령이 곧 오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신앙인은 예수님이 하신 기적이 경이로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에 대해 제자들이 기록하여 남긴 성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 그분의 제자로 살기에 충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예수님의 초능력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경이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곁을 떠나가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과 삶을 본받아 실천할 때, 그분은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요한복음서는 말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그대들은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고 그대들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14,19).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천 안에 살아 계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초능력을 과시하며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초능력을 과시하면, 사람들은 그 초능력에 매료되어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그것은 하느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초능력으로 사람들 위에 군림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사람들이 당

신의 생명을 자유롭게 받아들이고 실천하여 자유로운 당신의 자녀로 살 것을 원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마르 8,11) 바리새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초능력을 과시하여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자유를 존중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자유를 존중하신 나머지 악의에 찬 유대인들의 자유 행사에 압도당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의 자유를 무시하며 그를 압도하여 자기의 뜻을 관철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가 자기의 사랑을 자유롭게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호응하여 사랑할 것을 호소하며 기다립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처신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하느님이 섭리하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여 떠나가셨다는 오늘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에는 어느 누구도 사람들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위나 권한을 주장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떠나가셨습니다. 오늘 복음이 말하듯이, 당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남기고 당신은 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령이 일하셔서 나타나는 제자들의 실천 안에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군림하지 말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제자들에게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제자들의 정체성은 섬김입니다. 성령이 살아계시면 신앙인 안에 섬김의 실천이 보일 것입니다.

- 부산교구 서공석 신부 -



마중물

“제 2 바이올린 연주자가 없다면...”

세계적인 지휘자로 유명한 레너드 번스타인에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수많은 악기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번스타인은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제2바이올린입니다. 제1바이올린을 훌륭하게 연주하는 사람과 똑같은 열의를 가지고 제2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플루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연주자는 많지만 그와 함께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어 줄 제2연주자는 너무나 적습니다. 만약 아무도 제2연주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아름다운 음악이란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생각해보니 정말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늘 1등만을 원했지요. 그래서 주연만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했고, 반대로 조연이 무시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다보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주연의 역할만을 강조하고 있으며 주연을 향해서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으며, ‘나는 안돼’ 라는 부정적인 언어로서 스스로 삶의 실패자라고 각인을 시키는 경우도 참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신앙의 해’ 교육자료

제 3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33. 예수님 성탄의 신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성탄의 신비는 교환의 신비입니다. 곧 하느님이 인간이 되심으로서 인간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외양간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비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순박한 목동들이 이 사건의 첫 증인들입니다. 이 가난에서 하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카톨릭 교리서, 525항).

하느님 앞에서 ‘어린이처럼 되는 것’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을 낮추어야 하고, 작은이가 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하느님에겐 나고”, “위로부터 태어나야”(요한 3,7) 합니다. 성탄의 신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모습을 갖추실” 때 우리 안에서 성취됩니다. 예수 성탄의 신비는 이 ‘기묘한 교환’의 신비입니다(카톨릭교회교리서, 526항).

- 『저는 믿나이다』, 청주교구 복음화 연구소, 2012 -